

지나의 한국 사는 이야기

'나는야 1.5세 이주민'

다섯 번째 7월

7월의 공기는 언제나 무겁다. 덥고 습하고, 숨이 막히는 듯한 그 답답함이 온몸에 천천히 내려앉는다. 창문을 열어도 시원한 바람 따위는 불지 않는다. 낮게 깔린 구름 사이로는 쏟아지는 햇살만이 눈을 찌르고, 아스팔트 위에 번지는 열기는 아지랑이처럼 일렁인다. 사람들은 여름을 노래하며 분주히 살아가지만, 나는 이 달이 오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무겁게 짓눌린다. 손끝 하나 움직이기조차 버거운 공기 속에서,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언제나 같은 장면이 되살아난다. 내 아들이 세상을 떠난 그날 이후, 7월은 내게 계절이 아니라 상흔으로 남았다.

아들을 떠나보낸 뒤 한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움츠려 있는 시간이 길었다. 그렇게 있다가는 나 도 서서히 사라져 버릴 것만 같아, 어느 날 문득 두려움이 차올랐다. 그때 처음으로 몸을 일으켜 걸었다. 처음에는 집 근처를, 그다음에는 더 먼 길을. 평생 운동을 끔찍하게 싫어했던 내가 어느 날 운동화를 신었을 때, 발끝이 땅을 디딜 때마다 낯선 통증이 묵직하게 울렸다. 숨이 거칠어지고 가슴이 타들어가듯 아팠지만, 그 고통 속에서 잠시나마 마릿속이 비워지는 기적 같은 경험을 했다.

평생 두 바퀴 자전거는 나와는 인연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하게 자전거가 떠올랐다. 배우겠다고 결심했을 때 나는 이미 성인이었고, 몸도 굳어 있었다. 처음에는 넘어지고 무릎이 까지고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었다. 손목이 아파 밤새 뒤척인 날도 있었다. 그런데도 매일 페달에 발을 올렸다. 어느 날, 바람을 정면으로 맞

으며 두 바퀴로 달리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을 때, 목이 메어 숨을 삼켰다.

땀 흘리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싫어했던 내가 한여름 산을 오르기도 했다. 뜨거운 햇살이 내리 쬐히는 흙길과 돌길을 오를 때마다 셔츠가 등에 달라붙고 땀이 얼굴을 타고 흘렀다. 손에 쥔 스틱이 땀에 미끄러져 손바닥이 저릿하게 아파왔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렇게 힘겹게 오르는 동안에는 가슴속을 떠다니던 슬픔이 잠시 멈추었다.

그리고 나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블로그를 다시 열었고, 칼럼을 연재했고, 브런치북을 통해 작가라는 이름으로 내 아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놓았다. 자다가 눈이 떠지면 졸처럼 다시 잠들지 못했는데 그때마다 생각나는 문장들을 붙잡아 적었다. 쓰면서 울고, 다시 읽다가 울고, 베개가 훌쩍 젖어버리는 날들이 이어졌다. 나는 아들을 잃은 부모로서의 상실과 슬픔, 그 속에서 다시 의미를 찾고자 애쓰는 하루들을 나누었다. 누군가가 다가와 "당신의 글로 위로 받았다" 라고 말할 때마다, 나는 마치 누군가가 내 이름을 조용히 불러주는 듯한 위로를 느꼈다.

그렇게 나는 운동화 끈을 조이며 걷고, 달리고, 오며 땀에 젖었고, 아들 이야기를 글로 남기며 숨을 고르며 살았다. 내 모든 시도와 도전, 내 모든 글과 기록들은 단 하나의 이유로 이어졌다. 내 아들, 이서준. 아들을 잃은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움과 슬픔 속에 완전히 잠겨 무너져 내리지 않기 위해서, 건강하게 아들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그것이 내가 선택한 아들을 애도하는 최선의 길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지금, 다섯 번째 7월이다. 나는 믿는다. 이 모든 시간이 언젠가 내 아들을 만나러 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그날이 올 때까지, 남은 시간을 무기력하게 흘려보내는 것은 내 아들에게도, 나 자신과 가족들에게도 너무나 미안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살아간다. 거창한 성취가 아니어도 괜찮다. 다만 내 앞의 하

루를 성실히 살아내고, 내 앞의 사랑을 놓지 않고,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아이를 품고 같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

저녁이 되면 부엌 창문 밖 풍경에 잠시 멈춘다. 창밖은 여전히 뜨겁고 무겁다. 냄비 속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내 시야를 천천히 흐린다. 그 김이 마치 그날 마지막으로 내 품에 안겼던 아이의 숨결처럼 느껴져 손이 저려오고 귀가 멍멍해진다. 아무도 없는 부엌 한가운데서, 나는 아들의 이름을 부른다. 소리 내어 부르지 못하고 속으로만 되뇌는 그 이름을. 그렇게 아들이 내 곁을 떠난 지 5년이 되었다.

사랑하는 서준아.

엄마는 또다시 7월을 살고 있어. 다섯 번째 여름이야. 너를 떠나보낸 뒤로 엄마는 수없이 많은 길을 걸었어. 처음에는 한 걸음 떼는 것조차 두려웠지만, 이제는 슬픔과 그리움을 품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어. 너를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가 없는 시간을 의미 있게 채우며 당당하게 너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야.

엄마는 글을 쓰면서도, 사람들에게 건네는 위로를 적으면서도 너를 수없이 불렀어. 그 끝마다, 그 눈물마다, 너는 항상 거기에 있었단다. 준아, 엄마는 오늘도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남긴 사랑이 아직도 내 안에서 숨을 쉬고, 그 숨이 오늘도 엄마를 움직인다. 너 없는 세상은 여전히 낯설고 고단하지만, 그 사랑을 품고 살아내는 이 하루하루가 언젠가 너에게 닿을 길이 될 거라 믿어. 그래서 엄마는 오늘도 네 이름을 마음 깊이 새기며, 다시 하루를 건너갈 거야. 언제까지나 너를 가장 사랑하는 서준이 엄마로...

*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활했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는야 1.5세 이주민'은 '재미교포1.5세 이주민' 인 필자가 한국 생활을 하면서 전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 <편집자 주>



정상의 자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마켓 최고의 가격으로 7일 안에 팔아드립니다.**

**주택/ 상가/ 사업체/ 투자매물 전문
차별화된 전문가의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Leah Ivy Chang
Realtor

꿈과 사랑이 싹트는 내 집 마련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에이전트 아이비를 찾아주세요

- ※ 새집 분양! 여러지역 새집 매매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부터 투어, 입주하실때까지 자세히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 ※ 첫 방문시 저와 함께 가셔야 더욱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으며, 매입 거래시 어떠한 수수료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탑에이전트 아이비와 리스팅을 하시면 아래의 혜택이 함께 덤으로 옵니다

01 무료 홈 스테이징	05 무료 마켓 분석 & 감정
02 무료 홈 인스펙션	06 무료 집수리 & 페인트
03 무료 터마이트 리포트	07 무료 거라지 세일 싸인
04 무료 홈 워런티	08 무료 광고

**레드 포인트 회사
전체 탑 에이전트!**
Nationwide top 5% agent

아이비의 특별함으로
최고의 결과를 드립니다

LEAH IVY CHANG REALTOR
LeahChangRealty@gmail.com

714.904.1202
656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